

시민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겸비한 지도자를 기대하며 ...

박 영 속(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 박영숙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민의신문과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재정적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삼성의 협찬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40년 이상 사회운동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늘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오히려 현재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하루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지난 시대의 사회운동에 기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지난 시절 사회운동에 몸담았던 선배들의 삶이 그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한국 사회운동의 빛과 그림자를 평가하고 사회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10-20년의 미래를 전망하는 제1회 시민사회리더십 컨퍼런스의 고민이 저에게는 조금 낯설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보다는 앞으로 주어질 시대가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 되고 있으며 운동의 과제 또한 이념적으로 상황적으로나 더욱 복잡하고 중층적인 지평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타래 처럼 얽혀 운동의 과제를 하나 하나 풀어 헤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충실함과 아울러 미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대단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전국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참석하신 운동의 현장 실무자들과 책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울러 함께 이 시대에 대한 시민사회적 가치를 짚어준 공동체에 도움이 될 대안이 모색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사회운동은 인권, 평화, 여성, 환경, 복지, 빈곤, 사회개발, 문화, 청소년, 노인, 경제정의, 정치개혁, 장애인, 이주노동자, 자유이주민, 공익기금 등 다양한 시민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해결하기에는 힘들겠지만, 모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한 걸음 더 우리 세대 보다는 성숙하고 현명한 사회운동의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는 인큐베이터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